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 7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7월 15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협회 이상일 회장과 백종윤 수석부회장, 경북도회 원정대 회장, 강신구 상임부회장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김기석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강호인 장관을 비롯하여 김형렬 건설정책국장, 이병훈 건설인력기재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우리협회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방안 마련 및 공공발주기관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협조 공문 재시행 △주계약자공동

도급 대상범위 제한규제 폐지 및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면 시행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률 적정성 심사 대상 낙찰률 순공사비(88%) 이상으로 상향 조정 △국토부 녹색건축과 기계직 사무관 배치 등을 건의했다.

이상일 회장은 “국토부가 기계설비의 날 제정 및 유공자 포상 등 적극 후원하여 주시고 장관님께서 직접 기념행사에 참석해 큰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업계는 기계설비의 날 제정을 계기로 기계설비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기계설비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일 회장은 또 “국내에서 연간 30조원을 소비하고 있는 기계설비는 직접시공과 정밀시공으로

시공품질을 확보할 때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하지만 최근들어 설계가격 대비 55% 대로 하도급 받아 시공되고 있어 건축물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에너지 낭비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축물 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기계설비공사는 만년 하도급을 탈피해야 하며 토목, 건축, 전기와 동등하게 원도급 수주 활성화,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다음 “정부 차원의 기계설비공사 원도급 수주방안, 하도급률 상향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계설비의 날 제정 및 포상은 건설산업에서 기계설비 전문업계의 기술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계설비업계의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건설시장이 앞으로 늘어나지 않는데 최적의 대안

은 공생 측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므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인 장관은 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앞으로 20~30년 동안 에너지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고 탄소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비용을 얼마나 들여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국가적으로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하며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기계설비는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절감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에너지 관련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달라”고 말했다.

우리협회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 7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좌로부터 국토부 이병훈 건설인력기재과장, 국토부 김형렬 건설정책국장, 협회 강신구 상임부회장, 경북도회 원정대 회장, 국토부 강호인 장관, 협회 이상일 회장, 협회 백종윤 수석부회장, 조합 김기석 이사장)

1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기계설비는 토목, 건축과 별도로 독립된 학문 체계 및 시공기술 요구
 - 일반건축물 15~20%, 병원·연구소 20~30%, 플랜트공사 50% 공사비 차지
 - 건축물 생애주기비용 중 기계설비 부분이 전체 비용의 80% 이상 차지
- 기계설비 에너지 사용량 연간 약30조원으로 직접시공과 정밀시공으로 시공품질 확보만이 에너지 절감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
- 행정쇄신위원회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쇄신과제로 채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가능토록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시행('94.6월)
- 국토부, 공공발주기관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협조 공문 시행('00.5.24)
- 박근혜 정부,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14.1.1)과 지방계약법시행령('14.11.24) 개정 시행
 - 분리발주 대상공사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규정
 -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시행여부 검토 의무 규정 추가
- 시행령이 개정되었어도 대상에 기계설비공사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아직도 분리발주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로 녹색건축물 달성이 어려운 실정

■ 건의사항

- 기계설비 분리발주 의무화 방안 마련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공공발주기관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협조공문 재시행

2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규제 폐지 및 활성화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저가하도급, 불공정하도급 등 고질적인 폐해를 예방하고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도입('09.4월)
- 국가정책조정회의(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발표('13.6월)
 - 기계설비공사는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방식에 가장 적합한 업종임에도 발주실적은 저조함
 - ※ '15년 국가공사 11건 발주 : LH공사 대상공사 53건 중 8건, 철도시설공단 2건, 지역난방공사 1건
-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공사의 과도한 규제

- 동일한 아파트 공사에서 LH공사는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 가능하나, SH공사는 불가능
- 공동계약은 중소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통한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생발전에 그 목적이 있으나, 주계약자공동도급에만 적용 대상범위에 제한이 있어 공동계약 도입 취지에 위배(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은 제한 없음)
- ※ 국가공사는 공사금액(300억 이상)과 입찰방식(종합심사낙찰제)
- ※ 지방공사는 공사금액(2억원~100억원)

■ 건의사항

-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제한규제(공사금액, 입찰방식) 폐지
-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 전면 시행
 - LH공사에서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기계설비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전면 발주

3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률 상향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99년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시

행령 제34조)

- 하도급 심사 대상이 되는 하도급 낙찰가율을 82%로 정함('03)
- ※ 하도급 낙찰가율 82%는 하도급 공사의 직접공사비 수준이라기보다는 종전 국가계약 법령상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기준 88%(건설공사의 순공사원가 기준)와 견협에서 주장하는 75%~76%의 절충점인 82%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으로 정함
- '00년 하도급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부 고시)' 제정, 하도급률 82% 이하라도 심사 통과 가능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적정성 통과 점수가 90점으로 적정성 심사 통과 기준 하도급률은 사실상 77%임
 - 또한,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전자공개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률 77% 이하라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통과 가능
- 기계설비공사의 저가하도급은 시공품질을 떨어뜨려,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고 건축물 생애주기 비용이 증가되어 장기적인 예산낭비 발생

■ 건의사항

-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률 적정성 심사 대상 낙찰률을 순공사비(88%)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부 고시)을 개정하여 저가하도급이 가능한 조항 삭제 

이상일 회장, 최전남 서울시회 감사 경제사절 자격으로 몽골 방문



이상일 회장과 최전남 서울시회 감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몽골을 공식 방문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과 서울특별시회 최전남 감사가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몽골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11개, 중소·중견기업 62개, 공공기관·단체 36개 등 우리나라 몽골 경제사절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09개사 110명이 참가했다.

경제사절단은 첫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몽골진출 성공 사례인 (주)MKI 몽골 현지공장을 시찰했으며, 이튿날 울란바토르 상그릴라 호텔에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몽골 투자환경 및 양국 경제협력 방안과 신재생 에너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MOU를 체결했다. 마지막 날은 한-몽골 상담회를 통해 양국 업체의 일대일 비즈니스의 장이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며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로서,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몽골 진출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몽골의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적극 진출해달라”고 강조했다. 🌐

시·도회장 회의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7월 22일 기계설비회관 6층 중회의실에서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협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시·도회장회의에서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를 비롯해 「제1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 개최 등 협회 상반기 사업추진 현황과 하반기에 개최될 「기계설비건설 2016 Work-Shop」 추진계획 등이 보고됐다.

시·도회장회의에서 보고된 협회 추진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
-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추진
- 청주시 상당구청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반대 대응
- 소방기술자 중복배치기준 제도개선 추진
- 기계설비산업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 기계설비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시설공사업 4개 단체장 간담회 개최
- 청년해외취업지원(K-MOVE) 사업추진
- 기계설비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추진
- 제35회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추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추진
- 2016년 적용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 발표
- YTN 복지물 운영 업무협약 체결
- 「제1회 기계설비의 날」기념식 개최
- 「2016 건설의 날」기념식 개최
- 가스시설시공업 2016 Work-Shop 개최
- 기계설비 홍보 추진
- 「기계설비건설 2016 Work-Shop」 개최(안)



협회는 지난 7월 22일 기계설비회관 6층 중회의실에서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제4차 기계설비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개최



기계설비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계설비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유호선)는 지난 7월 19일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설계 및 시공분야 당면문제를 비롯해 생산체계 및 발주제도 직접조사 연구용역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계분야 당면문제로 기계설비 관련 법률에 대해 향후 개정 추진 방향을 검토했으며, 시공분야의 당면문제로 △기계설비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규제 폐지 및 활성화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률 상향 △플랜트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 허용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제도 개선 △건설공사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한편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시 냉동공조 제조업계의 동반성장 및 매출증대 등의 영향을 검토했으며, 미국 3개주를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해외의 기계설비건설 생산체계 및 발주제도에 대한 직접조사 연구용역 위탁 관련 계획 등을 협의했다. 


제40차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위원장 백종윤)는 지난 7월 19일 서울시회 회장실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방공사현장 중 고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하는 현장의 중복배치기준 강화에 따라 전문인력 부족 및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예 및 완화 건의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종합건설·기계설비 시공지역별 기성실적 현황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주요 분리발주 공사 발주 현황을 논의했으며, 조달청, 교육부, 건설정보센터, LPG배관망사업단, 농어촌공사, 국방부, 세종

시교육청, 가스안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업무추진 현황을 비롯해 국토부 장관 간담회 개최 결과 등을 보고했다.

백종윤 위원장은 “이번 국토부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며 우리 기계설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협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고 언급하며 “현업에서는 종합건설사도 토목, 건축, 기계, 전기를 인정하고 있고 설계도 구분되어 있음에도 현행 발주체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실증을 하여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한 축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사소식

(주)금주이엔씨,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로패 수상

(주)금주이엔씨(대표 조종택)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포천시 계류리에 위치한 수도권 북부 환상망 구축 관련 종합 준공식 행사에서 수도권 북부지역의 천연가스 보급 확대와 LNG복합발전소 및 열병합 발전소에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건설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로패를 수훈하는 (주)금주이엔씨 조종택 대표

공로패를 수상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1년 12월, 총 6,700억원을 투입해 인천 영종도에서 파주, 양주, 포천 및 의정부를 연결하는 수도권북부 환상망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올해 6월 천연가스 주배관 176km, 공급관리소 21개소의 건설 공사를 마무리했다. 

2016년 하반기

서울관내 회원사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 장학생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기계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해온 서울시 관내 기계설비건설업계 임직원의 자부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회원사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 및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회 정회원으로 1회원 1인에 한하여 추천 및 신청
- 기계설비건설업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상용근로자의 자녀로서,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건축설비관련학과 재학생 가점)
 - ※ 기계설비건설업계라 함은 기계설비건설업체(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등록한 업체)와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의 기계직 및 가스직을 말하며, 해당 업체별 근무기간을 합산 함
- 기계설비건설업체에서 3년 이상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건축설비관련학과 재학 중인 자
- 10년 이상 근속하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 부도 발생 등으로 폐업한 회원업체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 대학생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 ※ 신청제외 : ① 100만원 초과외 타 장학금 수혜자 및 기존 수혜자(임직원 기준), 휴학생
 - ② 회원사 대표이사 본인 및 대표이사 자녀, 일용근로자 ③ 회비 미납 회원사

2. 선발인원 : 10명

3. 장학금액 : 1인당 200만원

4. 신청방법 및 접수

신청방법	- 서울시 관내 회원사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신청 - 신청은 우리시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신청서류	- 장학생신청(추천)서 및 구비서류 일체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신청기간	- 2016. 7. 25(월) ~ 8. 23(화) (30일간)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장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건설회관 6층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5. 선발 및 발표

- 선 발 : 회원사 대표자로 구성된 우리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지급내규에 의거 심의하여 선발
- ※ 단, 기존 장학금 수혜업체가 최근 1년(2회)이내에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차순위로 결정함
- 발 표 : 2016년 10월 초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통지 함.

6. 문 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기획관리팀(6240-1208) 

2016년 분리발주 현장점검 실시



부산광역시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2016년도 분리발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부산광역시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위원장 이원득)는 지난 7월 7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로부터 (주)오신기업(대표 김성수)이 수주받아 시공 중인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2016년도 분리발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현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다. 현재 공정율은 80.2%이며, 공사금액은 약6억7천여 만원이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원득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덕 위원, 차동영 위원, 엄세현 위원, 조규읍 위원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한정국 기계팀장, 조유석 감독관과 (주)오신기업 김성수 대표 및 박명기 현

장소장 등이 참석해 현장 시공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원득 위원장은 이날 박명기 현장소장에게 "분리발주에 대한 발주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니, 준공까지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는 물론 타 공정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기계설비 이미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광역시회는 부산지역 공공기관에서 분리발주하고 있는 기계설비공사의 시공품질 및 신뢰 향상을 통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섬마을 자매결연 협약 체결



인천광역시회는 지난 7월 20일 인천시 옹진군 섬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인천광역시회(회장 최호선)는 지난 7월 20일 인천시가 추진하는 ‘매력있는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매결연 행사를 통해 인천시 옹진군 섬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인천 주요 기관·단체·기업 간 1대1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회 최호선 회장을 비롯하여 유정복 인천시장과 조윤길 옹진군수, 인화회 회원, 섬마을 이장 및 면장, 섬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호선 회장은 “옹진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지역이지만 최근 남북 관계 냉각 등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번 자매결연이 섬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길



최호선 회장(왼쪽 네 번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자매결연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천의 미래를 위한 가치창조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계설비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

광주 · 전남도회(회장 이연풍)는 지난 6월 29일 광주공업고등학교(교장 장기석)와 기계설비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산 · 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공업고등학교의 '특성화 졸업자'에 대한 회사 채용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연풍 회장은 “이번 산 · 학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양성하고 있는 특성화 졸업자들이 기계설비 현장에 배치되어 학생들의 취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는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광주공업고등학교와 교류 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연풍 회장은 또한 “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기계설비 전문대학 및 학과가 하루빨리 개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석 교장은 “우리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현장에 바로 배치되어도 손색이 없도록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니 기계설비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광주 · 전남도회는 지난 6월 29일 광주공업고등학교와 MOU를 체결했다
(사진 가운데, 이연풍 회장 및 장기석 교장)

2016년 지역별 회원사 간담회 개최 및 지역활성화 지원금 전달



경남서부협의회(5월 18일)



울산시협의회(6월 23일)




경남중부협의회(7월 18일)

울산 · 경남도회(회장 김원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경남중부지역, 경남서부지역, 울산지역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회 사업추진 및 건설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설명했으며, 건강보험료 관련 노무교육 실시와 함께 회원사 의견수렴을 비롯하여 업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등 친목과 유대의 시간을 가졌다.

김원열 회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지역은 조선산업 침체 등으로 지역경기가 열악한 현실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룬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 경남도회는 회원 친목과 유대 강화를 위해 울산시협의회 · 경남중부협의회 · 경남서부협의회 등 지역별 친목협의체를 두고 있으며 매년 간담회를 통해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7백만원을 증액한 총 3천 2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별 친목협의체 진흥에 힘을 계획이다. 

확대임원 회의 및 체련행사 개최

경기도회(회장 김석환)는 지난 7월 5일 의왕시 일원 에서 김석환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회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임원 회의 및 체련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체련행사를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석환 회장은 “지난 6월 17일 공공건축물 기계

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종합건설업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상정결과 종합건설에서 요구한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재상정 하기로 심의 보류 되었다”면서 “앞으로 하반기 의회에 재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회원사의 단결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회는 지난 7월 5일 의왕시에서 ‘확대임원 회의 및 체련행사’를 개최했다

강원도교육청에 장학금 기탁




강원도회는 지난 7월 6일 강원도교육청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사진 왼쪽 두번째 김철호 회장, 세번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강원도회 김철호 회장과 정문호 부회장은 지난 7월 6일 강원도교육청에서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철호 회장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원사 모두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있다”면서 “강원도교육청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살피달라”고 밝혔다.

또한 김철호 회장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면서 “우리 회원사는 앞으로도 고품질 시공을 통해 강원도 교육시설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병희 교육감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선의가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기계설비 분리발주가 춘천교육청 등에서도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분리발주 현장 시공품질 향상 점검활동 실시


충북도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위원장 오채열)는 지난 7월 28일 (주)에스비테크(대표 김우영)가 충북 대로부터 수주받아 시공 중인 '오송보건의료융합연구관'과 선우이엔씨(주)(대표 안치국)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주받아 시공 중인 '석장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품질 향상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분리발주 현장점검은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발주기관의 신뢰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장점검위원과 발주처 시설감독관 등이 일반사항,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시공상태 등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충북교육청 김진한 시설감독관은 "기계설비공사는 건물의 활용도와 생애주기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공정이다"면서 "시공품질점검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일일이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주는 것은 시공품질 향상에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채열 시공품질위원장은 "시공현장을 함께 점검하면서 미처 관심을 두지 못한 부분도 체크할 수 있어 시공품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시공품질점검 위원들도 기계설비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바람직한 시공사례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오 회장은 "충북도회는 앞으로도 시공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업계 신뢰 향상과 분리발주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협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충북도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오송보건의료융합연구관'과 '석장고등학교'에서 분리발주 시공품질 향상 점검활동을 실시했다.